

세계 예술계 ☆ 들 광주로...

내달 1일 아트 광주·3일 광주비엔날레 개막 맞춰

베니스 비엔날레·카셀도큐멘타 감독 등 총출동

세계 미술계의 별들이 오는 9월 광주로 온다. 제8회 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와 2010 아트 광주(9월1~5일·이하 아트광주)의 개막이 다가오면서 거물급 컬렉터와 작가, 큐레이터, 그리고 미술관 운영자들이 속속 광주로 도착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주비엔날레의 개막과 대규모 국제아트페어인 아트광주의 일정이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미술계 거물들의 광주 방문이 늘었다.

먼저 올해 처음 열리는 아트광주를 둘러보기 위한 '큰 손'들의 방문이 눈에 띈다. 바젤 마이애미 아트페어의 창시자인 미국의 5대 컬렉터 도널드 루벨 부부, 중국 현대미술을 세계에 처음 소개한 스위스의 컬렉터 울리 지이 광주를 찾아 아트광주와 광주비엔날레의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오는 9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아트광주 대담 프로그램에 참가해 강의를 예정이다.

또 중국의 유명 컬렉터인 허주신 민생은 행재단 위원장, 대만 타이페이 아트페어 설립자이며 컬렉터인 루디 첵 등도 이미 광주에 입성했다.

아트광주에 참여하는 유명 작가들의 방문도 줄을 잇고 있다. 이번 아트페어의 특별전 '플랫톱 프로젝트'에 작품을 출품한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와 중국의 대표 건축가이자 미술가인 아이 웨이웨이가 광주에 체류하면서 자신의 작품 설치를 지휘하고 있다.

또 아트광주 기간에 열리는 대담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오사카미술관의 타테하타 아키라 관장, 모스크바 비엔날레의 조셉 박슈타인 감독, 미국의 큐레이터 오귀 엔위저, 이탈리아 큐레이터 마누엘라 발디 등이 광주를 찾는다.

세계 유명 화랑 관계자들의 참여도 눈에 띈다. 뉴욕 래리 가고시안 화랑, 런던의 화이트 큐브 화랑, 런던의 하우스 앤드 워드 화랑 디렉터들이 오는 9월2일 광주에서 참여 작가 300명을 위한 파티를 열 예정이다.

광주비엔날레를 찾는 명사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이번 개막식(9월3일)에는 미국의



〈비센테 토돌리〉 〈신디 셔먼〉 〈장윌 고다르〉 〈댄 카메론〉

거물 컬렉터인 다키스 조아누와 뉴욕 뉴 뮤지엄의 이사화 이사 40여명이 한꺼번에 참여한다. 다키스 조아누는 그의 소장품만 갖고 미술관 전시가 만들어질 정도로 유명한 소장가다.

또 데디베어 프로젝트 소장가인 이데사 헬렌레스, 제약회사 머크의 대표인 컬렉터 마야 호프만, 테이트 모던의 비센테 토돌리 관장, 뉴욕 현대미술관의 캐시 할브라이시 부관장, 프랑스 리옹의 리옹현대미술관 티에리 라스파이 관장 등이 참여한다.

미국 MIT대학미술관의 제인 파버 관장, 뉴뮤지엄 리자 필립스 관장, 동경사진미술관의 오카무라 케이코 관장, 전 베니스비엔날레 총감독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토리노의 레바우딩과 재단의 관장인 프란체스코 보나미 등도 광주를 찾는다.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해외 비엔날레 관계자들의 방문도 잦아들었다. 베니스비엔날레의 비스 큐리거 총감독과 이스탄불비엔날레 비게 외레르 총감독, 휘트니비엔날레 프란체스코 보나미 감독, 뉴올리언즈 비엔날레 댄 카메론 감독, 카셀도큐멘타 캐롤린 크리스토프 바카기에프 감독, 싱가포르 비엔날레의 트레보 스미스 감독 등이 총출동한다.

이 밖에 미국의 신디 셔먼을 비롯하여 폴 매카시, 프랑스 누벨바그의 창시자인 장윌 고다르 감독, 이태리의 마우리치오 카텔란, 영국의 사라 모리스, 중국의 황용핑, 대만의 시더창 등 70명의 참여 작가와 르몽드, 아사히신문, 아트인 아메리카 등 해외 언론의 기자 60여명이 광주로 온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역·사의 향·기

국립광주박물관 새 문화재



손으로 부처의 말씀을 전하다

국보 제 185호 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은 후진의 구마라집이 번역한 ‘묘법연화경’ 7권을 고려 공민왕 22년(1373년)에 은색 글씨로 정성되어 율리언즈 비엔날레 댄 카메론 감독, 카셀도큐멘타 캐롤린 크리스토프 바카기에프 감독, 싱가포르 비엔날레의 트레보 스미스 감독 등이 총출동한다.

이 밖에 미국의 신디 셔먼을 비롯하여 폴 매카시, 프랑스 누벨바그의 창시자인 장윌 고다르 감독, 이태리의 마우리치오 카텔란, 영국의 사라 모리스, 중국의 황용핑, 대만의 시더창 등 70명의 참여 작가와 르몽드, 아사히신문, 아트인 아메리카 등 해외 언론의 기자 60여명이 광주로 온다.

란 이와 같이 불교 경전을 손으로 베껴 써서 책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사경의 가장 큰 목적은 부처의 말씀에 기록하는 행위를 통해 부처의 제자들에게 불교 경전을 가르치고, 불교를 널리 율리언즈 비엔날레 댄 카메론 감독, 카셀도큐멘타 캐롤린 크리스토프 바카기에프 감독, 싱가포르 비엔날레의 트레보 스미스 감독 등이 총출동한다.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부처(佛), 부처의 말씀(法), 스님(僧)을 세 가지 보물(三寶)로 여긴다. 이중 경전은 부처의 말씀으로 불상이나 탑 이상의 신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교 경전은 석가모니부처가 열반한 후 입으로 전해오던 생전의 설법들을 문자화한 것이다. 초기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 손으로 직접 경전을 쓰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사경(寫經)이

○양성혁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원

명창 임방울 미공개 음원 발굴

1956년 추주 축하연 대목 ‘판소리 대전집’ CD 펴내

광주에서 태어난 국창 임방울(1904~1961) 선생이 1929년 콜럼비아 레코드에서 취입한 ‘속대머리’는 국민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이후 임방울은 수많은 음반을 취입했고, 발표한 음반마다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채)는 30일 임방울 선생의 추주 공연 실황 등 미공개 음원을 담은 CD를 포함, 6장으로 구성된 ‘임방울 판소리 대전집’을 펴낸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음원은 임방울 선생이 1956년 추주에서 6·25 전쟁 당시 빨치산 토벌대장이었던 고(故) 차일혁 총령의 이

임 축하연 형식으로 열린 자리에서 부른 단가 ‘남원산성’, 판소리 ‘춘향가’의 ‘후원 처상’과 ‘어사 장모’ 대목 등이다. 이 음원은 차 총령의 유족에 의해 기증,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이번 대전집에는 임방울 선생이 1956년 국립국악원에서 공연했던 판소리 ‘수궁가’, ‘적벽가’ 원장 실황과 임방울선생이 극장에서 공연했던 여러 실황의 ‘춘향가’와 ‘수궁가’ 등이 수록됐다. 또 음반해설과 채록사실조사 등을 담은 150여 쪽 분량의 해설집도 담았다.

이와 함께 유성기 음반으로만 남아있던 임방울의 ‘흥부가’도 CD로 복각돼 수록됐다.

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대전집 작업을 하면서 CD 1장 분량의 미복각 테이프와 임 선생이 남긴 유성기 음반(137장) 가운데서



도 CD 3~5장 분량 정도를 발굴했다”며 “추주 작업을 통해 임방울 선생의 소리를 집대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방울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제18회 임방울국악제는 오는 9월 3일~6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등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판소리 경연을 비롯해,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임방울 판소리 장기자랑’ 등도 열린다. 문의 062-521-07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관현악으로 듣는 판소리

표윤미 가야금병창 발표회

국악인 표윤미씨의 세번째 가야금 병창 발표회가 오는 9월 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표씨는 이날 공연에서 판소리 다섯바탕 중 하나인 ‘수궁가’를 관현악곡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1부에서는 ‘수궁가’ 중 ‘탐승을 탕탕’부터 ‘영덕전’까지 수궁가 11대목을 관현악반주에 맞춰 판소리로 들려주며 2부에서는 ‘화공을 불러라’ 등을 가야금병창으로 선사한다.

판소리 수궁가 전 바탕을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것은 드문 일로 내뱃소리 민중예술단의 실내악단이 관현악 연주를 맡는다. 전석 초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윙을수록 깊은맛 ‘시의 향기’

빛고을 전국 시낭송대회

내달 15일까지 신청접수

시를 사랑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낭송 실력을 겨루는 ‘제2회 빛고을 전국 시낭송 대회’가 9·10월 광주에서 열린다.

아시아서적문화사(발행인 김영철)가 주최하는 이번 시낭송대회는 시의 대중화와 작가들의 시낭송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전국대회다.

대학생, 일반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자신의 시낭송 영상이 담긴 CD나 녹음 테이프를 9월 15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9월 20일 광주시 남구 서동 드림아트홀에서 열리는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 30명을 선발한다.

본선경연은 10월 23일에 치러질 예정이며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등 모두 7명에게 대상 100만원을 포함 총 2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 수상자 전원에게는 상장과 ‘서적문화아카데미’가 발행하는 시낭송가 인증서가 수여된다.

한편 아시아서적문화사는 계간 ‘아시아서적문화’에 작품을 5회이상 수록한 작가를 대상으로 ‘아시아서적문화상’을 공모하고 있다. 문의 062-233-8816.

○김정기자 bigkim@kwangju.co.kr

우전해수욕장 매일 운행

슬로시티 증도

전라남도 신안군 KTX 한국철도공사 **엘도라도리조트** 남해관광 광주 062-225-5544 서울 1566-2233

서틀버스 운행

● 당일셔틀 : 15,000원(주중) 왕복 / 18,000원(주말) 왕복

증도 1일 체험관광		※ 주말이용시 3천원 추가
상 품	요 금	
관광버스+엘도라도 해수사우나	20,000원	
관광버스+소금동굴(힐링센터)	20,000원	
관광버스+소금동굴(힐링센터)+해수사우나	25,000원	

(계좌번호) 광주은행 : 013-107-019079 (주) 남해관광
남해관광(09:10) - 광주역(09:20) - 광천터미널 맞은편(09:35) - 상무역(09:45) - 송정리역(10:10) - 증도(엘도라도리조트)

movieholic

영화가 빠지다

상무점 | 향토시장 영화사관 | 이남점

1관 아저씨(184)	1관 아바타 : 스페셜에디션 (124)
2관 내미리(202)/익스펜더블(184)/패가(154)	2관 아저씨 (184)
3관 인생선(124)	3관 죽이고싶은 (184)
4관 센츄리온(184)	4관 라스트에어벤더(202)/피라냐(184)
5관 라스트에어벤더(202)/피라냐(184)	5관 센츄리온(184)
6관 아바타 : 스페셜에디션 (124)	6관 익스펜더블(184)/패가(154)
7관 프레데터 (154)/마법천자문(202)	7관 악마를보았다(184)/마법천자문(202)
8관 피라냐(184)/곰은술원버(124)	8관 피라냐(184)/곰은술원버(124)
9관 죽이고싶은 (184)	9관 라스트에어벤더(202)/로스트로즈(202)/인생선(124)
10관 악마를보았다(184)/라스트에어벤더(202)	10관 프레 데 터 (154)

향토시장 | 영화사관 | 특별 상야상영 / 오남최대주장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MEGABOX

최고급관

1관 아저씨(184)
2관 악마를보았다(184)
3관 프레데터(154)
4관 인생선(124)
5관 라스트에어벤더(202)
6관 피라냐 (184)
7관 죽이고싶은(184)
8관 익스펜더블(184)/아저씨(184)
9관 센츄리온(184)

영역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CINUS

1관 인생선(124)
2관 익스펜더블(184)
3관 악마를보았다 (124)/ 패가(154)
4관 프레데터(디지털K) (154)
5관 라스트에어벤더(3D) (202)
6관 죽이고싶은(184)
7관 아저씨(184)
8관 피라냐(3D),(디지털K) (184)

책갈래있는 영화상영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